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팬데믹의 종료를 예상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방역해제 및 리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종료 멀었다. 유럽 다시 증가 미국도 증가 우려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코로나 다시 증가
BA2 미국내 23.1% 차지, 그러나 뉴잉글랜드 38.6% 차지
대부분 전문가들, 마스크 착용 다시 시작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돌아보면, 유럽의 폭증세는 몇 주 후 미국에서 반복됐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유메스 앰허스트 공중보건과학대학원의 감염병과 조교수인 앤드류 로버 박사는 “이

는 분명히 우려스럽다. 당연히 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로버 박사는 유럽에서의 증가세가 얼마의 시간 후 미국에서 반복됐던 과거의 패턴에 따라 미국의 증가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는 증가세가 나 ▶▶7면으로 계속

애틀란타 참사 1주년 미국내 현주소 여전히 참담

42세 남성, 60대 아시안 여성 무려 125차례 무차별 구타
뉴욕시와 인근이 아시안 혐오의 근원지로 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뉴욕에서 67세 아시안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무려 125차례나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11일 발생했다. 특히 이날은 애틀란타에서 아시안 여성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사건 1주기를 맞이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 여성은 오후 6시께 쇼핑카트를 끌고 뉴욕주 용커스에 위치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접근해 강력한 펀치를 이 시니어 여성의 머리에 날려 쓰러뜨렸다.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이 시니어 여성을 양손으로 무려 125차례나 가격하고 7차례 발로 짓밟았으며 나가기 전 침을 뱉었다.

발단은 빌딩 밖에서 시작됐다. 가해 남성은 빌딩 입구에서 이 여성에게 아시안 혐오와 관련된 욕을 날렸으나 이 시니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OVEMENT MORTGAGE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융자/재융자, 주택연금/투자 전문융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LE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버클리 음대, K-pop 심포지움과 K-pop의 밤 개최

“5년전만해도 세계적 K팝 예상 못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버클리 음대가 K-pop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한국의 케이팝 및 한국문화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인디팝 밴드 아도이(ADOY) 및 한국학생회의 공연을 8일 가졌다.

버클리음대 뮤직비즈니스/매니지먼트와 프로페셔널뮤직과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움 및 공연은 CJ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의 인디 신디팝 4인조 밴드 아도이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해 공연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패널 토크에서는 아도이의 오주환, ZEE, 그리고 이 밴드의 매니저이자 뮤직 에이전시 코하이(Kohai)의 CEO 대니얼 하, CJ 엔터의 뮤직비즈니스 디렉터인 제이크 흥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이크 흥 디렉터는 “ 불과 5년전만해도 난 K-pop과 한국의 연예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말하고 “한국 아티스트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되어있고 이 한류의 성공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며 영감있는 예술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연예업계는 아주 장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의 사회자인 버클리 토나 버틀러 교수는 “K-pop과 한국연예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뛰어난 아티스트의 콘텐츠에 주로 집중됐다”고 말하고 “이번 심포지움은 이 어메이징한 콘텐츠를 세계에 전달하는 아티스트들로부터 직접 음악을 듣고 또한 음악의 사업적 측면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독특했다”고 이번 심포지움에 대해 밝혔다.

버클리 한국학생회는 여러 다양한 한국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이날 심포지움을 장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버클리 음대가 K-pop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한국의 케이팝 및 한국문화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인디팝 밴드 아도이(ADOY) 및 한국학생회의 공연을 8일 가졌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 상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통과

동북부 주민들 환영, 일부 의사들은 반대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절차 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상원이 서머타임을 영구화 하는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이란 이름의 초당적인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쉘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이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준수하고 있는 일광절약시간 즉 서머타임을 새로운 기준시간으로 영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최근 계속 논의가 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도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었다.

이 같은 법안은 특히 겨울의 짧은 낮을 싫어하는 동북부 주민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아직 하원과 대통령의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일광보호법안을 상정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항공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2023년 가을께나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공동상정한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시계를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교 및 퇴근 후 더 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소를 띠 수 있기에 서머타임을 영구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일년에 두번씩 시간을 조정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쪽으로 합류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자동차 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서머타임의 혜택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와 아리조나만이 서머타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일단 일년에 두번씩의 시간조정을 없애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모든 문제를 일거에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의 짧은 낮 길이를 결코 늘려주지는 않는다. 실례로 서머타임이 영구화 되면 보스톤의 12월에는 아침 8시에도 해가 뜨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과의 시차는 지금처럼 동부의 경우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고 서부의 시차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애틀란타 참사 1주년 현주소 여전히 참담

▶▶1면에 이어서
어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이에 격분한 이 남성은 곧장 따라가 이 같은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 같은 처참한 행위는 모두 감시 카메라에 담겼다.

에스코는 폭력을 가하고 빌딩 밖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피해자는 바다에 누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용커스 경찰들은 진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잔인한 폭행범인 42세의 타멜 에스코는 살인미수, 폭행 그리고 혐오범죄로 기소됐다.

용커스 경찰서 존 몰러 서장은 “이번 사건은 가장 참혹하고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라며 “힘없는 시니어 여성을 폭행한 것은 정말 경멸스럽고 특히 이 여성의 인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얼굴 뼈가 함몰됐으며 뇌출혈 및 많은 자상과 멍이 들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에스코는 이미 14번의 체포 경력이 있었으며 이중의 절반이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그는 2011년 범죄로 3년형을 선고 받고 2년 반복역 이후 풀려났다.



폭행범인 42세의 타멜 에스코는 살인미수, 폭행 그리고 혐오범죄로 기소됐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특히 용커스 시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했다. 20만 주민 중의 7%가 아시아인이며 뉴욕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시아인을 타깃으로 한 혐오범죄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곳이었다.

팬데믹 이래 아시아인 혐오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Stop AAPI Hate 집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 이래 지난해 말까지 무려 1만1천건의 혐오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반 아시아인 정서가 팽배해 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31건의 아시아인 혐오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3건, 2020년 28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건까지 훨씬 많은 혐오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3월에만 해도 28세의 남성이 2시간 동안 무려 7명의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혐오범죄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4명의 아시아계가 혐오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스트할렘에서 캔을 모으던 중국계 이민자가 살해당했다. 40대의 아시아계 여성은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떠밀려 사망했으며, 35세의 한국계 여성은 아파트에 침입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퀸즈에서는 61세 여성이 떠밀려 사망했다.

애틀란타 참사 1주기를 맞는 뉴욕은 참담하다 못해 이제 아시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도시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주는 특단의 아시아인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 역사적 가스등 LED 램프로 바꾼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보스톤의 매력적인 유물 가스등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보스톤의 2천800여 개스등은 패트리어츠들이 썼던 모자 트리코넵츠, 좁은 코블스톤 거리 등과 함께 초기 보스톤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 중의 하나로 백베이와 찰스타운 등지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해왔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가스등이 향수적인 매력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첫번째 단계로 보스톤시는 가스등을 LED전등으로 바꾸는 시도를 시작했다.

보스톤시의 가스등은 매년 약 5천여 톤에 달하는 가스를 방출해왔으며 이는 보스톤 시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4% 차지하는 분량에 달한다. 이는 가스관의 노후화로 인해 방출되고 있는 매탄 가스 양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양이다.

새로운 LED 램프는 과거의 가스등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며 보스톤 다운타운의 베이빌리지에 설치됐다. 이곳의 가스등

은 공사로 인해 잠시 제거됐었다.

베이 빌리지 주민인 탐 퍼킨스 씨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 설치된 가로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LED 가로등의 붉은색이 섞인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하얀 가스등에 비해 너무 밝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웃동네는 가스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곳만 바꾸는 것을 우려했다.

앤 클리거스 씨도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지역이 이 LED 가로등으로 바뀔 때까지 이에 찬성하지 않겠다. 지금껏 보스톤시는 이번 가스등 제거 절차에 있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비컨힐 주민들은 새로운 가로등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비컨힐 주민들은 장애인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려는 보스톤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며 수년째 시와 대립하고 있다.

롭 휘트니 비컨힐주민협회(Beacon Hill Civic Association)는 보스톤시에 보낸 편지에서 비컨힐은 1천

여 가스등이 있는데 이를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휘트니는 “보스톤시의 거리조명 사업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대한 일체의 검토나 주민들 토론 절차도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교체에 관한 “활발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 검토 절차” 가 있을 때까지 시의 계획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수 프린들 백베이주민협회 건축위의 회장은 지난 주 베이빌리지의 LED 가로등을 조사했으며 “칼라가 좀 다르고 좀더 강렬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가스 가로등과 유사하다” 고 밝혔다.

프린들은 현재 보스톤시의 가스등은 400여전에 시작했던 가스등의 복제품이며 대부분이 1960년대에 새로 설치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녀는 “나는 교체에 찬성하며 가스에서 전기로 가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의 동료인 엘리엇 래퍼씨도 가로등 교체에 대해 찬성했다. “기후변화가 당면해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천연가스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



은 보스톤시가 행하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보스톤시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경우 막대한 세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 가스등을 밝히기 위해 매년 1백만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20만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LED 가로등의 전기 요금은 가스등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의 가스등은 매 2년마다 유지 보수가 필요했지만 LED 가로등은 10년여까지 다른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셸 우 시장은 성명을 통해 보스톤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서도 보스톤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린 호지 거리조명사업장은 현재 보스톤시 거리 조명의 85%가 LED 조명이라고 밝혔다. 이제 가스등을 바꿔야 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투TV / KTV / 우리방송
 TBO KBS MBC SBS tvN net Olive OCN Yon

이스트보스톤헬스센터 저소득 이민자 차별 치료

매스헬스 보험 사용자와 여성, 아이 제대로 치료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스트보스톤네이버후드 헬스센터(EBNHC)가 저소득자를 위한 보험 매스헬스 가입 이민자 환자들에게 차별적 치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 및 이민 권리옹호그룹은 모라 힐리 주법무부장관과 보건부에 이 병원을 고발했다. 이 병원 이 지난 2018년부터 많은 매스헬스 보험 보유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만 제공했으며 심지어 한 중증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 사망케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치료행위는 무려 9건에 달한다.

인권 그룹들은 법무부와 보건부가 이 병원에서 시스템적인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공동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인권 그룹들은 매사추세츠 인권법의 기준으로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BNHC는 이민자, 여성 그리고 매스헬스 보험 소유자들을 주로 차별했다. 인권그룹은 15일 이

병원 밖에서 열린기자회견에서 “환자들과 가족은 반복적으로 기준 이하의 차별적인 치료를 받았다. 결국 잘못된 진단으로 증상을 악화 시켜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 고 주장했다.

EBNHC는 주 최대의 커뮤니티 헬스센터다. 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 경험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다. 또한 법무부에 병원 측에서 자진해서 나서서 진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한 사건을 살펴보면, 마리아란 여성은 영아를 헬스센터에 데리고 갔으나 아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돌려보냈다.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다음 날 다시 병원에 데려갔을 때 헬스센터 직원들은 응급차를 불러 대형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아이는 이송 중에 사망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9세의 자스민으로 지난해 11월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측은 전기 카디오다이아그램을 돌려진찰한 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진통제



를 먹으라며 돌려보냈다. 이후 병원측은 이에 대한 추가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올해 2월 9일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지난달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과 키모테라피까지 받아야 했다.

자스민은 “병원 측에서 추가진료를 했었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좀더 일찍 진단을 받아 일찍 수술을 받았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아주시나란 환자(27)는 위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소화불량이라며 더 이상의 검사를 거부당

했다. 그러나 구토에 호흡곤란이 이어지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검사를 진행해 담석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이를 지갑안에 코인으로 비교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주시나는 계속 통증이 있자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이때는 담석이 담관을 막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아들과 무려 5일이나 떨어져 지내야만 했었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사추세츠 16일 확진자 725명, 사망 14명

확연한 감소세, 병원입원자 60%가 백신접종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는 16일 725명, 신규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7일 평균 양성확진자 비율은 1.53%로 지난해 7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 보건부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15일 기준 병원입원환자는 229명으로 감소했다. 중환자실 환자도 31명,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환자도 13명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229명의 환자 중 60%에 달하는 138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 14일간의 신규 감염자의 연령층은 20-29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39세, 15-1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젊고 활동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여전히 많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폭증하고 있고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감염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정관장

어흥! 호랑이 면역력

설에 챙기세요 정관장 면역력!



행사기간: ~2월 6일까지

정관장 면역력 설날대잔치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모기지 이자율 상승,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 자동차 대출이자도 상승, 소비 둔화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랜 기간동안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던 미국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인해 이제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이하대의 낮은 모기지 금리시대는 이제 역사속으로 저물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물론 자동차대출금리도 이제 올라가게 됐다.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을 많이 한 한인들은 어느 정도 이자율 인상의 혜택을 보겠지만 장기 사채펀드 수익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연준의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한인들에게 당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40년만에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은 2005년 이래 가장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대출 이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올해내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1.75%에서 2% 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2023년에는 또다시 4차례의 인상을 더해 기준금리를 3%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파월 의장은 대출시 지불해야 하는 이자의 상승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자동차,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결국 인플

레이션을 잡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게 인상해야 할 수 있다. 이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은 미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뱅크레이트닷컴의 수석 재정 분석가인 그렉 맥브라이드는 “단 쿼터퍼센트 포인트 이자율 상승은 가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하지만 누적된 효과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다음은 AP,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에서 다룬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택구입을 고려하는데 모기지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인가?

모기지 금리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연준의 움직임을 예상해 올랐으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이자율은 10년 국채금리에 근거해 결정된다. 또한 10년 재무성 채권 즉 국채 금리는 다른 대출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 재무성본의 이자율을 높게 되고 모기지 금리도 높게 된다.

지난주 연준 금리인상의 기대를 반영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거의 1%포인트 상승한 3.8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발표된 이번 주 프레디맥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는 4.16%로 다시 치솟았으며 이는 2019년 4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택구입을 원하고 있으나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며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 같은 상황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주택가격은 연당 20%으로 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구매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같은 가격인상은 조금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AP와 인터뷰한 퍼스트어메리칸 파이낸셜코퍼레이션의 차석경제학자 오데타 쿠시는 많은 밀레니얼세대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됨에 따라 강력한 주택 수요가 견제하고, 매물이 부족하며 신규주택 건축도 부진해 주택시장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는 “올해도 주택시장은 계속 활황을 이어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WSJ가 인터뷰한 콜롬비아대학 로라 벨드캠프 교수는 모기지 이자율 인상으로 리파이낸싱이 줄어들고 주택구입도 점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하락 또는 최소한 부동산 시장의 완화가 예상



된다” 고 밝혔다.

다른 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신용카드, 홈에쿼티라인오브크레딧 그리고 기타 변동이자 대출의 이자는 1-2달내에 연준의 이자율과 같이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대출의 이자율은 연준의 기준이자율과 같이 움직이는 프라임 이자율에 근거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발행되는 신용카드 이자율은 18.98%이다. 연준의 집계에 따르면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16.44%였다.

만약 향후 2년내 연준이 10차례를 올린다면 이자율이 2.5% 포인트 올라갈 것이며 신용카드 이자는 크게 상승해 연당 무려 20%대에 이르게 된다.

NY타임스와 인터뷰한 뱅크레이트닷컴의 수석재정분석가인 그렉 맥브라이드씨는 많은 신용카드 빚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0% 밸런스트랜스퍼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

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최고 21개월까지 0%이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동차 대출은?

자동차 대출은 5년 재무성본의 이자율에 근거해 고정이자율을 정한다.

지금과 같은 새차구입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동차 대출을 잘 확보해야 한다. 특히 딜러십과 대출은행은 특정 새차를 두고도 다른 금액을 부과할 수도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3월 10일 자동차 대출 평균 이자율은 3.98%였다.

특히 자동차 대출은 재무성본의 이자율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크레딧 상태, 대출 기간, 그리고 다운페이먼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연준의 이자율 상승이 자동차 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25,000의 대출인 경우 0.25% 인상이 한달 페이먼트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3에 불과하다.

저축으로 좀더 ▶▶7면으로 계속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팬데믹 종료 멀었다. 유럽 다시 증가 미국도 증가 우려

▶▶6면에 이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나?

그렇지만 미미할 뿐이다. 어느 세이빙 계좌인지에 따라 다르다. CD나 모니마켓은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은행은 고금리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당장 반영하지만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대형은행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심하다. 특히 대형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와 많은 부유층들의 줄어든 소비로 인한 저축으로 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D 이자율을 높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온라인 은행과 기타 고 수익 세이빙계좌들은 예외다. 이들은 공격적으로 저축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큰 금액의 저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자율은 아주 낮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율은 0.49%였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경우 지난해 0.15%보다 낮은 0.12%를 제공하고 있다.

국채금리를 반영하는 CD의 경우 조금 이자율이 높아졌다. 온라인뱅크의 경우 0.67%로 올랐으며 5년 평균 CD는 1.08%로 인상됐다.

대부분의 모니마켓 뮤추얼펀드는 일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모니마켓 이자율은 0.02% 이하이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타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소규모의 증가세로 그칠지 아니면 심각한 증가세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선 말하기 힘들다" 고 로버 박사는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월 초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영국은 최근 들어 감염세와 병원입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위스, 독일 그리고 그리스 등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스틴 레슬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공중보건 연구원은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우려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 고 말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을 기피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야 하며 좀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매튜 파스 보스톤대학공중보건대학 글로벌헬스 및 감염병학 교수 또한 "우리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파스 교수는 "감염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도 좀더 있을 것이므로 증가 규모가 클 것인지 아니면 작을 것인지 그리고 병원 입원율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고 말하고 "만약 병원율을 그리 높이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이를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수준에 올라있으며 병원 입원율을 높인다면 그때는 다른 조치가 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질병통제센터(CDC)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바이러스 집계 자료를 지적했다. 현재 미국내 전역의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최근 15일동안 바이러스 채집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립스연구분석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또 한차례 바이러스 증가세가 다시 시작됐다.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감염증가세는 결코 유럽에만 머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새로운 증가세를 두고 볼 때 미국의 봄철 다시 증가세가 시작될 것" 이라고 앤디 슬래빗 전 백악관 팬데믹 자문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현재 미국에서는 3만5천여 감염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일종의 증가 및 감소세가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FDA 전 청장이었던 스타트 고틀립 화이자 이사회 이사는 아주 낙관적이었다. 그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

감염자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BA2, 백신효과 약화, 방역완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증가세도 새로운 대유행을 일으키지 않으며 여름에는 다시 감소세를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보건관계자들은 영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국의 보건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리오프닝, 면역약화, BA2의 증가 등 세가지 요인이 주된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면역력의 감소에 따라 2차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화이자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BA2는 미국내에서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12일 현재 미국내 감염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지역은 비교적 높아 전체 38.6%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들에게 주의해야 할 대목이

다. 윌리엄 해니지 하버드 TH 췌관 보건 대학원의 감염병과 교수는 유럽의 상황이 "미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일부 지역에서 감염증가세가 일어날 수 있으나 BA2가 오미크론처럼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인지는 미지수" 라고 말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병원입원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세는 최근들어 주춤해지고 있는 상태다. 하수도 바이러스 검출도 한동안 급격히 감소하다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레슬러 박사는 "유럽의 증가세가 미국에 큰 유행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무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왔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방어장치" 라고 말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자동차 구입 사기 많아, 이민자들이 주로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자동차구입 과정에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연방공정거래위(FTC)에 접수된 자동차 구입 관련 불만이 10만건 이상이었다.

2월 개최된 연방공정거래위와 EMS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FTC재정부 대니얼 드와이어 변호사는 이민자 및 저소득층이 자동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뉴욕 브롱스 소재 혼다 딜러 매니저인 카를로 피탄토(Carlo Fittanto) 소송을 사례로 들며 이 딜러 매니저는 흑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용자 이자율 및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세일즈맨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탄토가 표적으로 삼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며, 히스패닉과 흑인이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백인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용자 비용을 지불했다. 혼다점의 세일즈맨들은 또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서류 작

성, 광고지와 다른 판매가 적용, 이민자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탄토 매니저와 브롱크스 혼다는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자동차는 우리 가족들의 삶과 교육에 필수적이며, 우리 생활에 구입하는 가장 비싸고 복잡한 상품이기도 하다” 며 자동차 구입시에 철저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자동차 딜러에 갈 것을 권했다. 그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악하고 예산을 정확히 정한다. 딜러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려 한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 <https://vehiclehistory.bja.ojp.gov/>에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딜러로 출발 전에 최저가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

곤 한다.

•자동차 용자 사전승인서(pre-approval)를 은행으로부터 확보해야 훨씬 유리한딜을 할 수 있다. 딜러 용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딜러는 채 서류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오토 용자가 끝났으니 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yo-yo” 용자에 조심해야 한다.

•딜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다.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의 구벨 변호사는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중고차 레몬로(Lemon Law)가 존재해 딜러에서 구입한 12만5천달러 이하의 중고차량들은 30일 내에 고장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가 적을수록 레몬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자동차 딜러 현금구입 거부, 딜러 용자시에만 차 판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자동차 딜러들이 소비자들 이 딜러에서 제공하는 용자 대신 현금이나 개인적인 자동차 용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초 보도에 따르면 한 렉서스 딜러의 판매원은 딜러가 소개하는 대출은행의 소개 수수료가 \$2,000이라고 밝히고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2,000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공급부족으로 인해 차량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자 딜러들은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딜러는 스티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자동차 대출은 딜러들이 은행을 대신해 대출을 주선하며 이자의 일부를 받거나 수수료를 챙기는 주요 수익원이었다. 또한 자동차론 대출은 보험과 높은 마진의 상품을 끼어서 팔기가 훨씬 유리하다. JD파워에 따르면 딜러들은 공급부족으로 차량판매가 줄어들면서 차량당 부과해야 하는 이익

이 훨씬 높아지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론 대출에 의존도가 높아졌다.

과거의 경우 자동차대출은 그동안 0%이자대출 등 프로모션의 도구였었다.

지난해 자동차론 대출은 7천 340억달러에 달해 지난 2004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대출의 55%가 딜러 파이낸싱이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최고의 수치였다.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18% 이하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내셔널 소비자법률센터의 존 벤 엘스트 변호사에 따르면 딜러는 최근들어 소비자들에게 딜러 파이낸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도 최근 수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뉴욕의 소비자보호부는 지난해 11월 개의 중고차 딜러를 소비자들에게 딜러대출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강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속 빠지는 5분 플랭크

며칠 방심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으면 쉽게 푹 나와버리는 우리들의 이 정직한 아랫배.. 특히 뱃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뱃살타파를 위한 복근운동의 정석, 플랭크편을 준비했어요. 초보자들에게는 꽤 도전적이고 강도가 있는 운동이므로 제가 알려드리는 비교적 쉬운 옵션을 따라해보시고 중간에 버티기 힘들면 잠시 휴식하고 다시 따라오셔도 돼요. 처음엔 생각보다 잘 안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보면 요령과 힘이 생겨 5분 플랭크도 휴식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운동해요! 랫츠고!!

아래 영상을 찾아 보시면서 따라하면 더 쉬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5분 플랭크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엘보 플랭크 (elbow plank)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꿈치를 어깨 밑에 오게 내려줍니다.

2단계 한다리씩 뻗어 전신을 일자로 길게 만들어주세요

3단계 엉덩이가 어깨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며 복부를 등쪽으로 강하게 수축해주세요

주의!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 목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4단계 1분을 버티기 힘들다면 중간에 무릎을 대고 버티어도 좋습니다. 단 복부는 바닥에 대지 않기!

2. 사이드 플랭크 (side plank)와 변형동작

1단계 엘보플랭크에서 손바닥을 짚고 올라와 베이직 플랭크를 만들어주세요.

2단계 오른손은 어깨 밑에 두고 왼손만 천정 쪽으로 올리고 발꿈치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3단계 균형잡기가 힘들다면 사진처럼 왼발을 앞으로 가져가 지지해줍니다.

주의! 두 엉덩이를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해주시고, 어깨가 아프지 않게 복부의 힘을 더 써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4단계 30초 후에 반대방향도 휴식없이 진행합니다.



3. 엘보 사이드 플랭크 (elbow side plank)

1단계 앞의 사이드 플랭크에서 팔꿈치를 내

려 엘보 플랭크로 돌아옵니다.

2단계 앞에서 한 것처럼 몸통을 틀어 이번엔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횡단합니다.

3단계 두발을 모으고 버티기 힘들다면 사진처럼 서로 벌리고 횡단합니다.

4단계 30초 후에 반대방향도 해주세요.



4. 베이직 플랭크 (basic plank)

1단계 엘보 사이드 플랭크에서 손바닥을 짚고 올라와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어깨 밑에 손목이 위치하게 하고 복부를 강하게 수축해 가슴을 매트에서 밀어내세요

3단계 팔약근의 힘과 코어의 힘을 같이 가져가면 1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손목이 아프거나 약하신 분들은 1번 엘보 플랭크로 내려와 진행해주세요.



5. 레인보우 플랭크 (rainbow plank)

1단계 엘보 플랭크로 돌아와 엉덩이를 좌우로 쉴쉴룩, 무지개모양을 상상하며 움직입니다.

2단계 마지막 플랭크인만큼 힘이 빠지기 쉬우니 복부를 더 등쪽으로 끌어당기고 호흡도

일정하게 진행합니다.

3단계 허벅지 사이 조이며 힙답을 이어가고 중간에 힘들면 엘보플랭크에서 정지도 좋습니다.



** 5분의 플랭크가 끝나면 영상과 함께 어깨와 목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터/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꿈의 집을 Compass Coming Soon 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mpass.com에서는 Compass Coming Soon을 통하여 마켓에 곧 나올 매물들의 정보를 미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당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들은 미리 선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mpass Coming Soo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ch the first glim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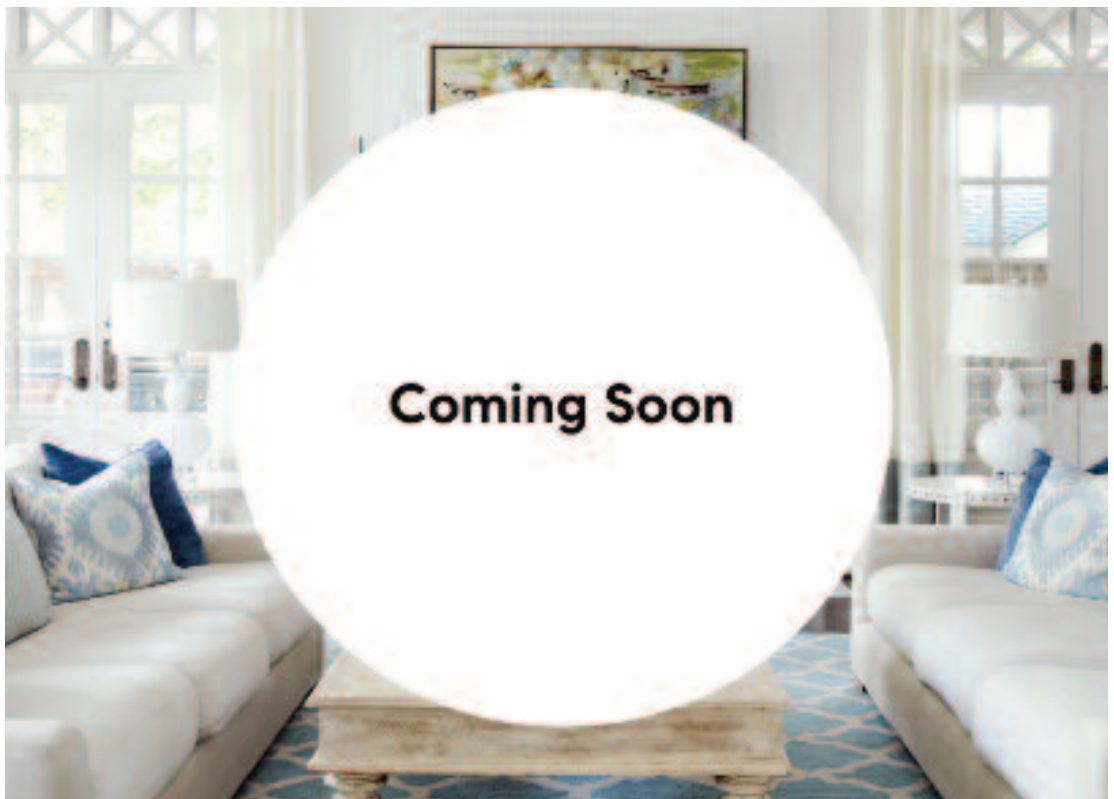
Compass Coming Soon 목록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ompass Coming Soon 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구매자보다 먼저 검색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market

Compass Coming Soon 목록은 한곳 Compass.com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당사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Streamline your search

Compass.com의 저장된 검색을 사용하여 꿈의 집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선호하는 목록 기준을 쉽게 설정하고 새로운 Compass Coming Soon 목록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Compass 어카운트 셋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
COMING SOON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코스트코, 코로나19 고위험군 별도 쇼핑 시간 서비스 해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한 '별도 시간대 우선 쇼핑 서비스'를 다음달 17일(현지시간) 종료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15일 미국 고객용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60세 이상 시니어, 의료계 종사자, 응급구조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 쇼핑 시간대를 다음달 17일까지만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코스트코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선포된 2020년 3월부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고위험군 또는 취약층으로 규정한 이들을 위해 특별 쇼핑 시간대를 설정했다.

서비스 대상에는 장애인과 면역 저하자도 포함됐다.

서비스 시간은 애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였다가 작년 7월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같은 시간대로 축소했다.

이 시간대에 일반 회원은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

코스트코의 이번 방침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



며 많은 사업체와 지자체가 관련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때 나온 것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지난주,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다음달 19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만7천267명, 사망자는 326명으로 집계됐다.

오하이오·애리조나·하와이 등 11개 주에는 신규 확진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플로리다·일리노이·몬태나 포함 29개 주와 워싱턴DC 등은 사망자 0명 기록을 세웠다.

chicagorho@yna.co.kr

스타벅스 "1회용 컵 단계적 퇴출하고 임대 머그컵 확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적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얀 1회용 종이컵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라고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에 쓰이는 하얀색 바탕에 초록 로고가 인쇄된 종이컵과 찬 음료에 쓰이는 투명한 플라스틱컵은 한눈에 스타벅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브랜드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컵은 동시에 환경 문제를 유발해왔다. 1회용이다 보니 사용한 뒤에는 곧장 폐기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매립되거나 폐기된다.

스타벅스의 마이클 코보리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는 "우리 컵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그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사회를 보여주는, 어디에나 있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보리 책임자는 이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1회용 컵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1회용 컵을 단계적

으로 폐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컵 임대'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이 1달러(약 1천2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담은 일반 컵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를 매장 내 스마트 쓰레기통에 반납하면 1달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친환경 캠페인보다 고객들로부터 반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8개 시장에서 20가지 종류의 다른 컵 임대 프로그램을 시험하면서 새 컵을 개발했다. 이 컵은 가벼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1회용 컵을 대신해 약 100번 사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에 남기는 발자취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매장의 매니저 킴 데이비스는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서 즐거움과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일본과 싱가포르, 영국에서도 비슷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자기 컵을 가져온 고객에게 보상으로 10센트를 주던 것을 50센



트(약 600원)로 올리거나, 1회용 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프로그램도 테스트하는 중이다.

스타벅스는 또 내년 말께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객들이 사전 주문이나 드라이브스루 주문 때도 자신이 가져온 머그컵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는 모든 고객이 자기 머그컵을 가져와 사용하거나 임대 머그컵을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1회용 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제품경험 담당 부사장 어밀리아 랜더스는 "가장 열렬한 지속 가능성의 옹호자인 고객도 쉽게 행동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스타벅스에서 종이컵·플라스틱컵을 없앤다면 이는 큰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보스톤
1차포럼

4차산업과 블록체인

부제 WEB3.0 시대와 IPFS

2022년 4월 5(화)

1차강의 오후 2시

2차강의 오후 7시

참가비 FREE

Four Points by Sheraton Boston Newton

32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

강사 윤현석 대표(도서출판 채움박스)

모집인원 / 각 차시별 선착순 15명, 아래 연락처로 사전등록 필수

주최

ANT Club

후원

Henry, Max Park, 황춘복

행사문의

대표 이준균 (617) 543-5728, filecoin52@gmail.com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준, 3년여만에 금리 0.25%p 인상... 추가로 6회 인상 시사

물가 전망치 크게 높이고 성장률 낮춰...우크라 사태가 물가상승 압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올해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고용 안정 기조 속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물가잡기에 방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2015~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연준이 별도로 공개한 것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작년 9월에는 연준 위원의 절반만

이 올해 기준금리 1~2회 인상을 예상했고, 그해 12월엔 대부분이 2~4회 인상을 고려했다. 올 들어선 연준이 5회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일자리가 안정된 반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직전인 작년 12월 전망치 2.6%를 크게 상회하는 4.3%로 올렸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

치는 2.8%로 직전보다 1.2%포인트나 내렸지만, 실업률 전망치는 직전 3.5%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일자리 성장세가 최근 몇 달간 강력했고 실업률도 떨어졌으며 "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는 전염병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과 관련된 수급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은 또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

채와 기관 부채,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머지않아 양적 긴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미 국채와 MBS 등을 대거 사들여 현재 보유자산이 9조달러에 이른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jrbryoo@yna.co.kr

미국 2월 주택착공 6.8% 상승... 2006년 이후 최고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6.8% 증가한 177만 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주택시장이 대호황을 누렸던 2006년 중반 이후 최고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 급증했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0만 건을 상회했다.

연말·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따른 인력난이 진정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해 말 착공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86만 건(연율)으로 1월보다 1.9%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185만 건)보다는 많았다. firstcircle@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독일 신규확진 30만 육박 역대최다...백신접종의무화법안 토론회

보건장관 "백신접종 의무화로 팬데믹 처음으로 끝낼 수 있어"

(베를린=연합뉴스) 이울 특파원 = 독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을 놓고 첫 토론회가 개시됐다.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질병관리청 격인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 따르면 독일의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만4천931명으로 지난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26만2천7542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278명이다.

독일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천651.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 1천650명을 넘어섰다. 이 지표는 최근 2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연방하원에서 "우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로 독일내 팬데믹을 처음으로 끝낼 수 있다"면서 "이 유일한 기회를 함께 잡지 못한다면, 가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급확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백신접종률이 90%를 넘어야 하고, 전반적으로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내 전체 인구중 1차 접종자는 76.5%, 2차 접종 완료자는 75.8%, 3차 접종자는 58.1%다. 60세 이상에서는 3차 접종자가 78.3%에 달하며, 2차 접종 완료자는 88.7%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연방 하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023년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4개 원내정당 소속 237명의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

이 밖에 50세 이상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는 법안도 발의됐다.

연방하원은 3주 후 표결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트

위터 계정에 "나는 기한이 제한된 모두에게 공통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바이든, 코로나조정관 교체... '엔데믹' 전환 대비하나

(서울·뉴욕=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조정관이 내달 사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후임에 아시시 자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

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이언츠 조정관이 수십년간의 사업 경험을 백신 접종과 치료, 마스크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쏟아부었다"며 "우리가 이룬 성과로 미국인은 이제 안전하게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가 출신인 자이언츠 자문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

원회를 이끌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코로나 대응 조정관을 맡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총괄했다.

ABC 방송은 자이언츠 자문관의 교체는 백악관이 위기 상황 대응에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며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아시시 자 원장을 후임으로 지명, 전환기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팬데믹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 박사가 최적임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오미

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소강 국면에 접어들 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등 전격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국의 1주일 단위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는 3만2천891명으로 한 주 전보다 11.3% 감소했다.

kyunghee@yna.co.kr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이틀간 100만명 확진 · 600명 사망... "거리두기 완화로 정책 실패

위중증 열흘 연속 1천명대 · 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 최근 20일간 발생, 전문가들 "오미크론, 독감 수준 아니다"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기자 = 17일 0시 기준 62만1천328명이 라는 초유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40만741명에서 22만명 넘게 폭증한 수치다. 이날 신규확진자 집계에는 전날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 수가 포함돼 있다.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를 합하면 102만2천69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이틀 동안 하루 평균 5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부가 선부르게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초래된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가 확진자 폭증을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로 발생한 정책 실패"라며 "그런 과정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급작스러운 신속항원검사 진단 기준 변화, 대선 선거 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역 완화가 원인"이라며 "영업시간을 늘린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완화 메시지가 너무 강력

하게 간 것 같다. 그래서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높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복수의 연구기관은 유행 정점이 16일부터 22일까지 형성된다고 전망했다. 정점에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1만6천~37만2천명으로 예상했는데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엄 교수는 "추정치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검사량에 따라 확진자가 100만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점 구간은 더 길어졌다"며 "원칙대로 거리두기 정책을 했다면 2월 말, 3월 초에 정점 찍고 내려왔을 텐데 정점은 커녕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정점 규모는 이미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크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100만명당 확진자는 6천730명이다.

프랑스는 정점(1월 25일)에서 100만명당 확진자가 5천436명이었고, 영국과 미국도 각각 2천681명(1월 5일), 2천425명(1월 15일)으로 한국보다 적었다. 일본은 100만명당 749명(2월 9일)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했다.

현재 추세라면 이날 0시 기준 825만592명인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 내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민(2022년 추계 인구 5천162만8천117명) 5명 중 1명, 20%가 코로나19 감염 경험을 갖게 된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의 20%가 감염되



17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천32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면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보인다. 우리나라도 정점 구간에 서 인구의 20%가 감염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천159명으로 열흘 연속 1천명대를 유지했다. 전날 1천244명보다는 85명 줄었는데, 이는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429명으

로 직전일(164명)보다 265명 급증했다. 이틀간 집계된 사망자는 593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발표된 사망자 중 3일 이내 사망자는 206명, 그 이전 사망자는 223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0일간 사망자는 3천698명으로 전체 사망자(1만1천481명)의 32%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3분의 1이 지난 20일 동안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의 61.54%(264)는 80세 이상이다. 70대(94명)와 60대(43명)를 합하면 사망자의 93.47%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84.38%(978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중증병상가동률은 65.6%로 올라섰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중증·사망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고령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을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확진 후 통보와 재택치료 안내 등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도 덩달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확진자수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명률 수치는 낮아질 수 있지만 하루 수백명씩 사망자가 쏟아지는 상황을 놓고 정부가 계속 '독감 수준'이어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RING ON SPRING WITH SHEPHERD'S PURSE SOYBEAN PASTE STEW

USING THE VERY COMMON AND VERY POPULAR IN THE SPRINGTIME INGREDIENT, SHEPHERD'S PURSE, THIS SOYBEAN PASTE STEW TASTES REFRESHINGLY FAMILIAR YET DIFFERENT WITH ITS STRONG FLAVORS AND FRAGRANCE!

H 마트와 함께 향긋한 봄냄새가 가득한 냉이 된장찌개를 만들어보세요~!



BURLINGTON WEEKLY SALE MAR. 18th - MAR. 24th, 2022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p>Stem Tomato 스텝 토마토 LB \$1.49</p>	<p>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4 OZ/PKG 2 \$5.00 FOR</p>	<p>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36.99</p>	<p>White Cabbage 양배추 LB \$0.99</p>	<p>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3 EA/PKG \$12.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Kabocha 단호박 LB \$0.99</p>	<p>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p>	<p>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2.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소 목등심 스테이크 SLICED/LB \$9.99</p>	<p>Fresh Beef Eye Round 생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p>
<p>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7.99</p>	<p>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p>
<p>Frozen Smoked Duck 냉동 훈제오리 SLICED/LB \$17.99</p>	<p>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SLICED/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냉동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WILD CAUGHT SIZE 10-20/LB \$7.99</p>	<p>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냉동 자반 클린 참조기 LB \$8.99</p>
<p>Frozen Scampi Shrimp 냉동 스크램피 새우 SIZE 11-15/LB \$9.99</p>	<p>OHGWANG Spicy Mini Filefish Fillet 오광 매운맛 한입쥬포 SPICY - 4 OZ/PKG \$6.99</p>
<p>TONGTONGBAY Frozen Squid Tube 통통배 냉동 오징어 튜브 16 OZ/PKG \$5.99</p>	<p>Striped Bass 양식 농어 FARMED/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p>	<p>H MART SMART CARD ONLY COOK100 Appa Soup Base Tablet 쿡100 아빠육수 ANCHOVY/HOT PEPPER 3.96 OZ \$7.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곱표 중력 밀가루 5.5 LB \$3.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4.99</p>	<p>NONSHIM Neoguri Udon type instant noodles 농심 너구리 4.23 OZ X 16 EA/BOX \$14.99</p>	<p>KYONGBUK Roasted Seaweed 경북 생 곱창 재래김 4.5 OZ 50 SHEETS /PKG \$10.99</p>	<p>PULMUONE Dried Seaweed 풀무원 진국 미역 3.52 OZ \$4.99</p>	<p>THREE CRAB BRAND Viet Huong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 OZ \$6.99</p>
<p>CHORIP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초립동이 순생선살 총합어묵 1.1 LB \$3.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 /PKG \$12.99</p>	<p>Q1 Homemade Sweet Korean Pan Cake Mix 큐원 홈메이드 찰호떡 믹스 ORIGINAL 19.4 OZ \$3.99</p>	<p>YUDONG Canned Bai-top Shell 유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7.99</p>	<p>SUNGGYUNG FOOD Pepper Chips 성경식품 고추부각 2.12 OZ \$2.99</p>
<p>KWANGDONG Vita 500 Vitamin Drink 광동제약 비타500 100 ML X 10 BTLs /PKG \$5.99</p>	<p>CROWN Choco/White Heim 크라온 초코/화이트 하임 10 OZ \$3.99</p>	<p>HELLO! Stainless Steel Lunch Box 헬로! 한칸 스텐 도시락 PINK/BLUE 20 X 14 CM -\$8.99 \$6.99 /EA</p>	<p>WANGTA Toothbrush 왕타 칫솔 STONE/PASTEL 10 EA/PKG -\$15.99 \$11.99</p>	<p>HELLO! Clean Water Spin Mop w/ 2 Mopping Pads 헬로! 클린워터 회전걸레 + 패드 2장 2.5 L - WHITE -\$34.99 \$24.99 /EA</p>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최고의 가격 할인

UNBEATABLE PRICE!



950 mL
아몬드와
호두 두유가
하나더!
EXTRA 950 mL
INCLUDED!



3월 17일부터 '한정판매'

정식품 베지밀 아몬드와 호두 두유
190 mL X 24 EA + 950 mL X 1 EA/PKG

LIMIT 2
per customer

~~\$22.99~~

\$1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융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보호 우수요율 지원방안
대상되었습니다.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abulry)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l16Zd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2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MA, NH, RI, ME, VT, CT) 거주자 우선 선발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서, 성적표, 이력서, 2쪽 이내 에세이 등)

마감일자 5월 1일 (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an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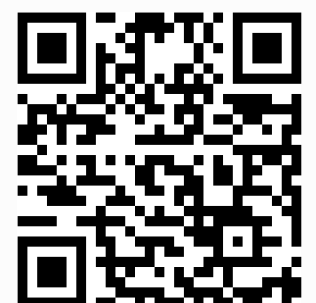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7) 분산투자의 중요성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Location) 선택인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이 분산투자(Diversification)이다. 분산투자의 개념과 중요성은 투자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자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본인이 선택해서 투자한 종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하는 대박을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복권을 구매하여 발표날까지 비박부자의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열풍과 함께 테슬라, GameStop, AMC, 등은 물론 ARK Invest에 투자해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끊임 없었다. 속담에서 말하듯 '사촌이 땅을 사면 열마나 배가 아픈 일' 인가? 주위 여기저기에서 주식투자자로 돈 벌었다는 무용담을 듣고 본인만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에 분산투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분산투자자로 대박 나가는 어렵지만, 하락

하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선 손실을 최소한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요즘 주식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자. 주식시장 S&P 500은 9% 하락, 나스닥 18% 하락, 가상화폐는 40~60% 폭락이다.

어느 특정한 회사 주식은 어떠한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메타플랫폼의 주가가 사상 최대폭인 26% 하락했다. 시가 총액으로는 무려 300조 원이 사라진 것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75% 육박한다. 삼성이란 한국의 대표 회사가 하루아침에 25%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라. 아크이노베이션 (Ark Innovation)은 최고점에서 50% 폭락이다. 코로나로 한창 인기였던 운동기구 제조업체 펠라톤(Peloton) 회사의 주식이 \$170까지 상승했다가 \$25까지 폭락했다. 넷플릭스(Netflix) 주식도 올해에만 30% 하락이고 최고치에서는 50% 폭락이다.

주식시장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최고점에서 20% 폭락, 25%에 해당하는 주식은 최고점에서 40% 폭락, 그리고 15%에 해당하는 주식 최고점에서 무려 60% 폭락을 경험

하고 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15%에 속한다면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이유인지 지난 3년 2021년 27.9%, 2020년은 18.4%, 그리고 2019 투자는 31.5%로 주식시장 지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대박을 기대한 투자자는 현재 뼈아픈 투자 손실로 후회를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첫걸음은 분산투자이며 투자하는 돈이 여기저기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이 금융업계에서 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며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다. 이 개념으로 1990년 해리 마코위츠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이론의 기본은 투자할 때 수익(Return)을 최대화하면서 위험(Risk)은 최소화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논문이다.

주식시장은 분명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므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나의 투자목적, 나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S&P 500지수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주식시장 변화를 인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S&P 500지수 한 종목에만 투자해서는 위험하다.

2000-2002에 주식시장 하락으로 S&P 500 지수가 14.6%로 떨어진 반면 작은 회사(U.S. Small-Cap Value Stocks)는 오히려 12.2%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큰 회사 주식은 거의 40% 하락했지만 장기 국채(US long-term government bonds)는 26%가 상승했다.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 때는 정확히 어떤 종목에 어떤 이유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투자 위험성은 얼마인지 그리고 선택한 모든 투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는 하락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대비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장기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편안한 노후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공(軍官公)(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군관의 부모는 동란과 석명공주이다. 석명의 부모는 진지왕과 보명이다. 제25대 진지왕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고, 보명의 부모는 구진(仇珍376)과 지소태후이다. 진지왕과 보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석명공주는 성장하여 제26대왕인 진평왕의 후궁이 되었다. 그리고 석명은 이름이 전하지 않는 공주 두 명을 낳았다. 그 후 출궁했다. 출궁의 이유는 가무(향가)를 배우다가 스승과 사통하여 출궁하게 되었다.

김군관의 아버지는 동란(冬蘭)이다. 동란의 부모는 동종과 오란이다. 동종은 거칠부의 아들이고, 오란의 부모는 오종과 비란이다. 오종은 진흥왕의 동부이복 형이다. 김동란은 향가 雜歌를 잘해서 음성서(音聲署)의 장수로 재임하였다. 이때 진평왕의 후궁으로 있던 석명이 동란에게 가서 향가를 배웠다. 그러던 중 그들은 상통하여 딸 석란을 낳았다. 이에 진평왕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였고, 김군관은 그들의 넷째 소생이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김군관의 세계(世系)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동란(冬蘭)이고 할아버지는 동종

冬宗이다. 증조는 오종(五宗)이다. 오종공은 사실공주(實公主)의 아들이다. 보현공주가 어렸을 때 범흥대제와 사랑(和好)하여 사실공주를 낳았다. 범흥대제가 사실(實失)을 입종공에게 시집보내어 오종공을 낳았다. 오종공은 곧 진흥대제의 이모형(異母兄)이다. 오종이 비차부의 딸 비란을 아내로 맞아 딸 오란을 낳고, 황종공의 아들 동종을 데려다 아들로 삼아 오란을 배필로 삼게 하여 동란을 낳았으니, 공은 실로 보현과 사실의 적사(嫡嗣)이다. 석명공주가 처음에 진평제를 섬겨 두 딸을 낳고 출궁했다. 동란공은 그때 음성서의 장으로 향가를 잘했다. 석명이 동란공에게 가무를 배웠다. 마침내 서로 사랑하여 딸 석란을 낳았다. 제후가 허락하여 혼인을 했으나 동란공은 감히 처부로 대하지 못하고 군공으로 섬겨 자녀를 계속 낳았다. 공은 그 네 번째이다. 석명의 어머니는 보명인데 금륜제를 섬겨 현조(玄鳥)의 꿈을 꾸고 석명을 낳았다. 그러므로 공은 실로 황종공의 증손이고 구진의 외예(外裔)가 된다.]

입종공은 범흥왕의 동생이다. 범흥왕의 유일한 적녀인 지소를 아내로 맞아 삼맥종을 낳았다. 그리고 입종은 20대의 나이에 죽었고, 아들 삼맥종은 제24대 진흥왕이 되었다. 그리고 지소는 남편 입종이 일찍 죽은 후 여러명의 남편(정인)이 있었다. 먼저 4세 풍월주를 역임 한 이화랑이 두 번째 남자였다. 그들은 딸 만

호를 낳았다. 만호는 진흥왕의 장남 동륜태자의 부인이 되어 진평왕과 백반과 국반을 낳았다. 그러다 이화랑은 지소의 딸인 숙명공주와 눈이 맞았고, 그들은 둘만의 사랑을 위하여 궁궐을 도망쳤다. 결국 지소의 용서와 허락으로 둘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결혼하였다. 이화랑과 숙명은 장남 원광법사와 차남 12세 풍월주 보리를 낳았다. 보리는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부이다. 지소의 세 번째 남자는 태종 이사부인데 그들은 6세 풍월주 세종(화랑세기에는 노리부와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노리부는 진흥왕의 정비 사도의 오빠로 기록되어 있다)과 숙명공주를 낳았다.

네 번째 남자는 고종사촌인 박영실이다. 지소는 박영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황화공주와 송화공주가 태어났다. 적자가 없었던 범흥왕은 박영실로 하여금 대통을 이으려고 했지만, 딸 지소를 비롯한 중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지소는 왕후의 자리보다는 태후의 자리로 권력을 누렸다. 그리고 기록상 지소의 마지막 남자는 구진이다. 그들은 딸 보명을 낳았다. 보명은 진흥왕과 진지왕(진흥왕의 차남)과 진평왕(진흥왕의 장손, 동륜태자의 장남)의 후궁이었다.

금륜제는 진흥왕의 차남으로, 장남 동륜태자가 아버지의 후궁으로 있던 보명의 담장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기에, 태자가 되

어 576년 즉위한 진지왕이다. 579년에 폐위되어 7월 17일(음력)에 사망하였다. 진지왕의 폐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화랑세기가 모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신라의 역사를 신라인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즉위 후 미실을 왕후로 맞는 약속을 어긴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모 사도태후와 미실이 노리부와 세종을 앞세워 폐위시켰다.

376) 구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삼국사기(거칠부열전)에 보면, 대각간의 벼슬로 거칠부와 함께 총 9명의 장수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 중부를 551년 공격해서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한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화랑세기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의 남자(정인, 침신 등)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명공주를 낳았다. 보명은 이부동복 오빠인 진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진흥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둘째 아들 사륜(진지왕)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석명공주가 태어났다. 이 석명이 김군관의 어머니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연상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 드라마로... "추적스릴러 가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2년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이 드라마로 제작돼 시청자들을 찾는다.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드라마 극본을 쓴 탁재영 작가는 15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팬들을 배신하지 말자는 생각과 원작을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돼지의 왕'은 20년 전 친구의 메시지와 함께 시작된 의문의 연쇄 사건으로 폭력의 기억을 다시 꺼내게 된 이들의 이야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탁 작가는 '돼지는 우화적으로 상징성을 갖는데, 누군가에게 사육되고 지배당하는 비극적 운명에 처한 군상들을 대변한다'며 "제목인 돼지의 왕은 사람들이 약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우는 것을 은유적으로

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은 왜 강자와 약자로 나뉘고, 폭력을 왜 휘두르고 그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함께 사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고 말했다.

탁 작가는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원작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추적 스릴러로서 재미를 강화했다"며 "끔찍한 과거를 겪은 인물들이 어떻게 현재를 살고 있는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을 쓰면서 과격적인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감개 무량하다"고 전했다.

드라마는 김동욱과 김성규가 쫓고 쫓기는 팽팽한 관계로 등장해 극의 긴장감을 끌고 간다.

김동욱은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로 평범했던 인생이 달라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쫓기는 '가해자'인 황경민으로 김성규는 그런 경민을 쫓는 형사 정종석으로 분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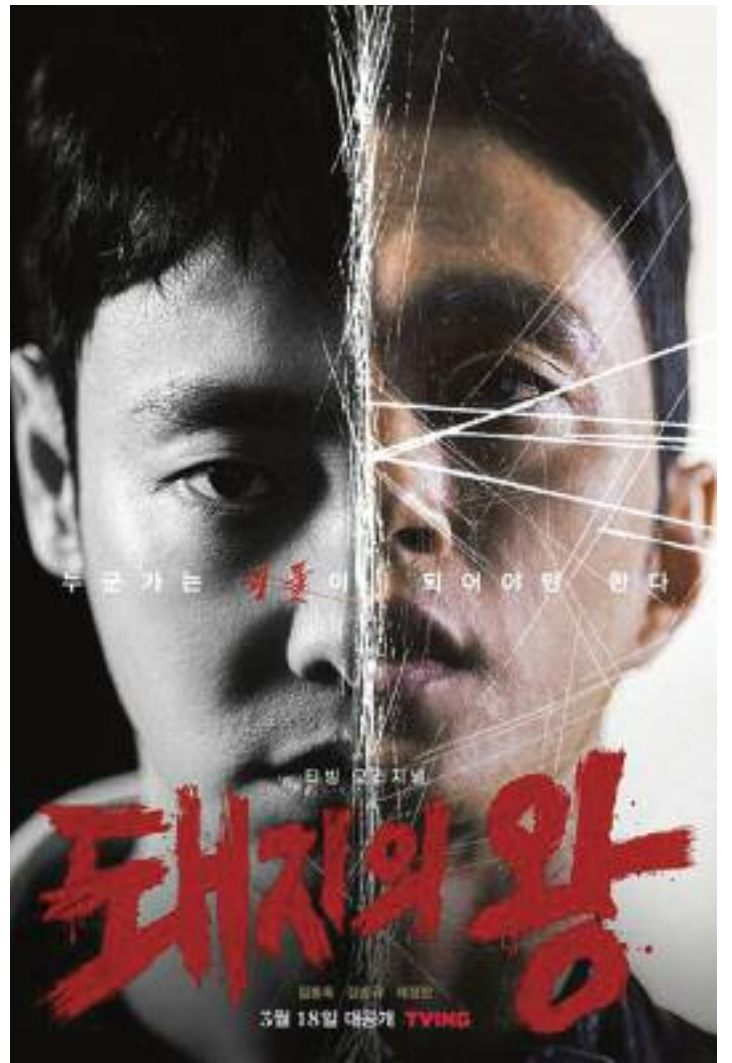
김동욱은 "경민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며 "경민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존재하는데, 장면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규는 "종석은 처음에 형사로서 냉정하게 사건을 보지만 회차가 진행되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감정을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채정안은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로, 종석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세한 형사 강진아 역을 맡았다.

채정안은 "진아는 해설자 느낌으로 원작에서 거칠고 불편할 수 있는 쉰 부분들을 시청자 입장에서 같이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원작주의자 캐릭터로 신념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다"고 전했다.

'돼지의 왕'은 오는 18일부터 티빙에서 순차 공개된다.



3월 20일 - 3월 26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p> <p>●운수: 기본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기본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21, 22일 주의.</p>	<p>소띠 신중하게 행동해야</p> <p>●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범띠 치유되고 아물면서</p> <p>●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2, 26일 길일, 23, 25일 주의.</p>
<p>토끼띠 깊이 생각해보아야</p> <p>●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용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p> <p>●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뱀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p> <p>●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말띠 대책을 세워놓아야</p> <p>●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한번 틀어 생기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틀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양띠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p> <p>●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p>	<p>원숭이띠 직접 확인하고</p> <p>●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뭔가 사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닭띠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p> <p>●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본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5일 길일, 24, 26일 주의.</p>	<p>개띠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p> <p>●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5일 주의.</p>	<p>돼지띠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p> <p>●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11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유재석과 함께 미션을...카카오TV '플레이유' 첫회 43만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유재석이 시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션을 수행하는 카카오TV 콘텐츠 '플레이유'가 첫 라이브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카카오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100분간 진행한 '플레이유' 라이브 방송 조회수가 43만뷰를 기록했고,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채팅 건수가 8만 건이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플레이유'는 출연자와 시청자의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 인터랙티브 예능으로 첫 방송에서 주어진 미션은 수상한 창고 안에서 제한 시간 100분 이내에 휴대폰을 찾아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이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미션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유재석에게 '유리는 애칭을 지어주고

미션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쉴새 없이 쏟아냈다. 채팅창에는 유재석의 소속사 안테나 대표 유희열도 깜짝 등장해 유재석을 응원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벨 소리를 따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이야기에 반응하며 웃음을 짓고, 미션 종료를 10여분 남기고 삼을 이용해 방 천장에 있던 휴대폰을 찾아 얼굴인식으로 잠금을 풀었다.

유재석과 미션 수행을 함께 한 시청자들은 "진짜 유재석이란 말이 기분", "100분이 순삭(순간 삭제)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플레이유'는 매주 화요일 카카오TV와 플레이유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매회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다.



15일 진행된 첫 라이브 방송 때 다음달 중 카카오TV를 통해 20분 내외 분량으로 편집 공개될 예정이다.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5억뷰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5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6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해 9월 24일 공개 이후 173일 만인 전날 오후 11시 28분께 5억뷰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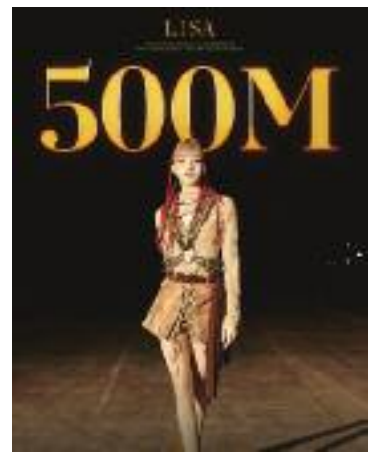
YG엔터테인먼트는 "이는 K팝 아티스트의 안무 영상 가운데 가장 빠른 5억뷰 달성 기록"이라며 "중전 최단 기록인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은 5억뷰까지 183일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머니'는 리사의 첫 솔로 음반 '라리사'(LALISA) 수록 곡으로 세련된 힙합 사운드

와 자신감 넘치는 랩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발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 세계 주요 차트에서 역주행하는 진기록을 썼다.

'머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각각 2주, 8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tsl@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생의 세 갈래길

"언제나 한 번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네비게이션도 없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그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_김용태 교수 글 중에서.

그렇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지만,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며 맞고 보내고 또 오늘과 다른 어제를 만들며 산다. 단 한번도 미래는 살아 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불안한 존재인 까닭이다. 현대인들은 바쁘지 않은가. 그 빠른 걸음으로 어느 목

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일까.

"우리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생활을 그리며 산다. 문제는 자신의 현실과 그 간극이 커지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현실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는 게 괴로워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과거에 빠져 사는가 하면, 허황된 미래에 빠져 살기도 한다. 몸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정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이들 역시도 살아온 세상의 경험만큼이나 보람과 영광의 산 정상 높이보다 찢기고 얽힌 상처의 아픈 골이 깊디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란 생각

이다. 유한적인 삶과 인생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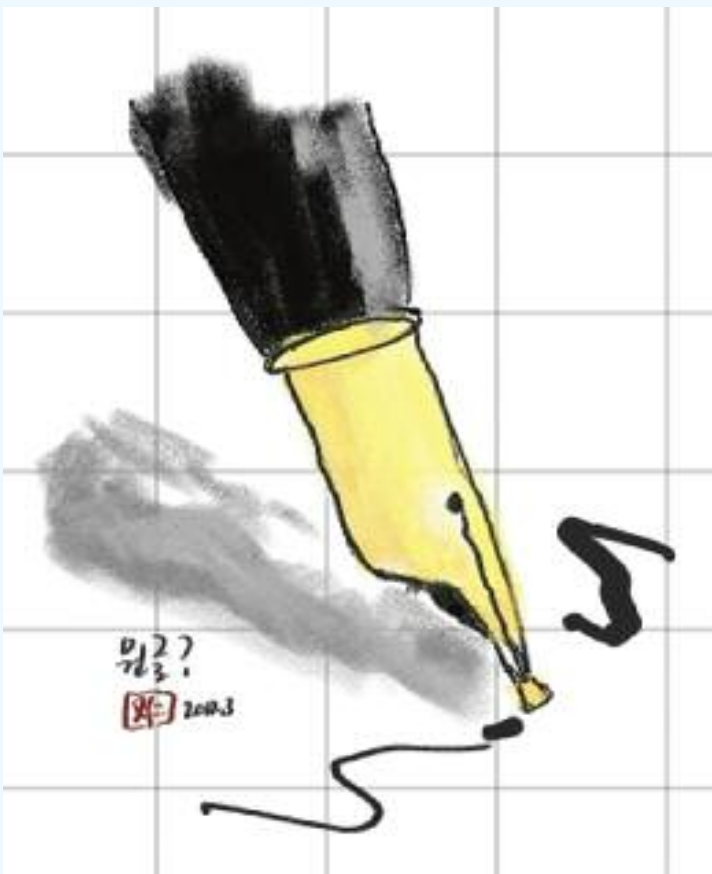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르는 안내표지판이 트레일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산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령 같은 산 같은 트레일을 여러 번 올랐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교만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의 삶에 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인생의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현재가 어제의 현재였으며 내일의 현재인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 사뭇 물을 가서 가고 싶은 장소를 찾으려면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을 정하고 찾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내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 겉모습의 내 모습뿐만이 아닌, 내 내면의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까닭이다. 나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받을 얼마만큼 앞으로 내디딜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지 않겠는가. 무작정 마음만 앞서다간 낭패가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현재에서 과거의 길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너무도 허황된 부푼 꿈으로 현재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한다. 삶뿐만이 아닌 신앙생활(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 확실한 목적지가 지금 나의 현 위치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 제대로 된 목적지 방향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점검하는 오늘이면 좋겠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파카 51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에 은빛나는 뚜껑을 갖고 있었다. 썩 잘생긴 고급스런 만년필이었던 거다. 51이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도 필요치 않았는데, 미군 납품이었다 던가. 당시 미국에선 흔한 필기구였다길 나중에 알았다. 무려 80여만 자루나 팔렸던 거다.

나 역시 만년필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썼다. 내 형이 줬던 파카 51이었는데 사랑은 연필로 쓰라할 적이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누군가에겐 추억속의 필기구이고 노래일 수도 있다.

...
사랑을 즐겨거든/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지워야 하니
까
처음부터 너무/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지우기가 너무너무/어렵잖아요
(전영록 노래)

노래 가사가 재미있다. 연필은 지울 수 있는데, 잉크글씨는 지울 수 없단다. 그렇적에 추억은 연필이 아닌 만년필로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쉬이 잊혀질 수 없는 추억도 있으니 말이다.

만년필은 추억의 필기구라 말한다. 그러나 난 아직도 만년필을 사용한다. 파카 51은 아닌데 이따금

생각 날적엔 꺼내 드는 거다. 그리고 공책에 몇자 끌적이곤 한다. 내겐 만년필이 추억이 아닌바 현재 사용형일 수도 있겠다.

참, 형이 선물해줬던 파카만년필은 미국에도 가지고 있었다. 몇년 잘쓰다가 언젠가 잃어버렸다. 잉크가 막혔는데 이사다니면서 슬그머니 내 손을 떠났던 거다. 아쉽고 형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한국에선 입학시즌이다. 요즘은 입학기념으로 뭘 선물하는가? 만년필은 아닐테데 스마트 폰인가? 그런데 연필은 왜 대부분 노란색일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 8:6)

추억은 과거를 전제로 한다. 현재나 미래를 추억할 수는 없다. 현재와 미래는 생각거나 추측할 수는 있겠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짝궁이 푹푹하게 생긴 눈이 큰 아이였다. 그가 파카만년필을 쓰고 있는게 눈에 띄었다. 입학선물로 누나에

게서 받았다고 두어달 후에 말했다. 나야 군침만 흘렸는데, 내 만년필은 국산 파이롯트 만년필이었다.

그의 만년필을 한번 구경하자 청했다. 너그러웠던 친구는 선뜻 그 귀한(?)걸 보여 주었다. 마크도 선명한 Parker 51. 진한 청색 몸통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SPRING CHAMBER CONCERT

WITH MUSICIANS OF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LISA JI EUN KIM
VIOLIN



SHEILA FIEKOWSKY
VIOLIN



DANIEL GETZ
VIOLA



OLIVER ALDORT
CELLO

WORKS BY SUNG-KI KIM, MARTINŮ, AND BEETHOVEN

SATURDAY, MARCH 26TH AT 7:30 PM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TICKETS: KCSBOSTON.ORG OR CALL (781) 223-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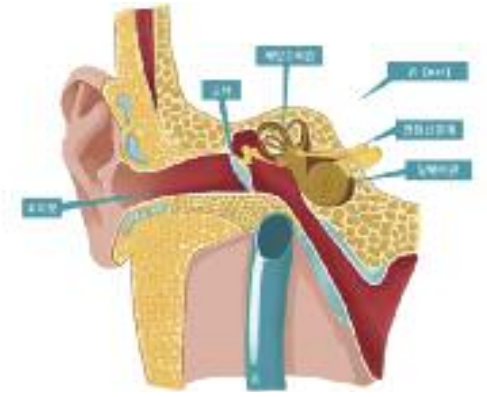
GENERAL **\$30**/ SENIOR **\$20**/ STUDENTS **FREE**

PROOF OF VACCINATION AND A 3-PLY OR KN-95 MASK REQUIRED. PLEASE VISIT KCSBOSTON.ORG FOR PARKING INFORMATION.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가볍게 여겼다가 큰일, 뇌졸중 전조증상일 수 있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이지만 가볍게 여겼다가 큰 질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병원 신경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어지럼증은 평형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심각한 질병일 수 있으므로 처음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지럼증의 원인

어지럼증은 크게 자발성 어지럼증, 체위성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어지럼증은 뇌졸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성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할 경우 메니에르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 이명,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유전적,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체위성 어지럼증은 주로 이석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귀 안쪽에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내로 들어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드물게는 뇌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1~2분 정도 지속되며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라집니다.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심한 머리충격, 내이질환,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은 기립성 저혈압, 약물, 말초신경병증, 탈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어지럼증은 순간 잠시 발생하며 주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될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드물게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저하, 대뇌 기능저하 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청력저하가 온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력에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1. 앉거나 편하게 기댄 자세, 누워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2. 구토가 느껴진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지럼증을 느낄 때는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피하고 지팡이 등 지지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4. 가급적 운전은 삼가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 최근 약물을 처방받거나 용량을 변경

후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처방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줄기나 소뇌에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뇌줄기와 소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 뇌기저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흔히 알고있는 뇌졸중의 경우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현상으로 마치 술 취한 양상을 보인다면 소뇌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에는 특히 뇌졸중을 조심해야 하는데 뇌졸중은 크게 혈관과 피열되어 발생하는 ‘뇌출혈’ 과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 으로 나뉘는데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되고 있으나 갈수록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고 평소 운동이 부족한 생활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는 30-40대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의 경우

1. 한쪽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
2.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3.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
4.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5. 이전에 없던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경

우
6. 혼자서 있지 못하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 어지럼증 예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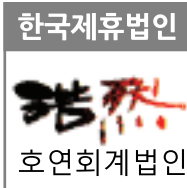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1. 혈관 관리를 위해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짜지 않게 먹습니다.
2. 하루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3. 비만, 흡연, 과음,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관리합니다.
4.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5.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6.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7.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 가볍게 여겼다가 큰일,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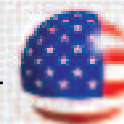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2022년도 정기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

교사가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힘

일시 2022.03.27 6:00-9:00 pm
장소 Zoom Meeting
 ID: 884 1821 7579 PW: teachers
등록 소속 한국학교 별(3월 12일까지)
강사 조현용 교수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
 우리말 어휘 연구가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장 역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역임
 저서: 우리말 지혜, 한글의 감정, 우리말 교실 외 다수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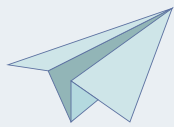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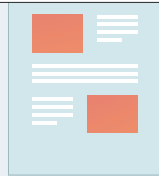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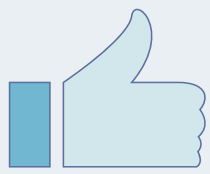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